

# 해방이후 한국여성 화장변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1945~1995를 중심으로-

동주여자전문대학 피부미용과  
교수 김희숙

## 目 次

I. 서론	V. 결론
II. 시대적 배경	참고문헌
III. 화장사의 고찰	ABSTRACT
IV. 복식과 화장변천 및 특성	

## I. 서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서의 화장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특히 화장이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복식문화와는 중요한 공통성을 가지며 발전하여 왔고, 현재에 와서는 화장이 의복, 액세서리, 헤어스타일등과 함께 total fashion의 한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장문화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비롯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보편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 6·25동란을 거쳐, 5·16 군사혁명을 계기로 하여 경제개발등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화장에 반영되었다. 특히 여성치장과 여성의 생활양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서양문물 도입사상, 여성교육기관의 설립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교육기관과 언론의 보급은 화장의 변

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방이후 화장의 변천을 보면 미군의 군정, 해외동포의 대거귀국으로 모든 면에서 서구화를 촉진시켰으나 한국화장품 산업의 자체 기반이 미약한 형편이었고 수입품에 의존했다.<sup>1)</sup> 신식화장품과 함께 신식화장법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직업여성들의 치레 즉 새로운 패션이 신여성<sup>2)</sup>에 의해 유행된 것으로 적잖은 반발에 직면하여 대중화에 한계를 노출시켰고 일반인들은 전통 화장인 담장(淡粧)<sup>3)</sup>의 형태로서 피부보호에 중점을 준 흰피부를 선호하는 화장이었다.

1950년대는 6·25동란으로 모든 패션산업은 기본마저 상실하였고 전쟁기간과 그 직후 전쟁복구기중, 수요는 겨우 밀수와 구호품으로 충족하였다.

군부대의 주둔으로 직업여성이 늘어나고 이들 여성들의 외모가 하나의 유행으로 작용해 일부여성들이 무조건 추종함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은 박화장, 얇은 화장, 점잖은 화장을 강

1) 전완길 외 한국생활문화 100년. p.60.

2) 유수경 “한국여성 복식변천사” 일지사. 1991년 p.171.

신여성, 단발머리에 짧은 저고리 짧은 치마를 입고 양산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신여성을 일컫음.

3) “大韓 和事典”: 우아하고 얇은 화장을 말함.

조하였다.

1960년대에는 국내화장품의 미용홍보로 부자연스러운 하얀분화장에서 자연스런 피부표현으로 바뀌고 립스틱의 종류도 다양해져 입술화장의 변화도 가져왔다. 그러나 기초제품과 기초손질에 치중하였다.

1970년대 본격적 메이크업 제품의 생산으로 메이크업색상과 화장술이 발달하고 화장이 total fashion의 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1980년에는 메이크업에 치중할 때이다. 본격적인 컬러시대를 열었고 이때까지 개성을 무시한 화장에서 여성들의 개성연출이나 표현을 할 수 있는 색조화장이 시작되었고, 화장분위기는 가늘고 짧은 눈썹, 둥글고 짙은 눈, 입체적 느낌이 나는 불연지 화장이 부드러운 여성미를 표현했다.

화장을 total fashion의 한요소로 인식하는 의식이 생겼으며 시간, 목적, 장소에 어울리는 화장법이 정착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칼라TV 방영. 경제가 풍요로워짐에 따라 메이크업색상의 다양화를 가져왔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된 피부보호차원의 화장품이 발매되고 특정한 한 스타일이 유행하지 않고 개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style이 나타나고 있다.

화장에 관해서는 제조업체의 규모, 제품의 종류, 화장품 시장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현대에 와서 기성복화된 의복보다 변화가 용이하여 개성표현이 자유로운 화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화장술이나 표현형태 선택에 대한 화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논문은 화장술이나 색채화장이 거의 없이 피부관리에 그쳤던 해방이후 1945~1960년 까지와 경제개발이후 1960~1970년 국내화장품 산업이 본격적 생산을 한 시기인 1970~1980년, 칼라 TV의 방영으로 색채에 관한 수요가 폭발적인 시기인 1980년에 1995년까지 4시기로 시대적 배경

과 함께 화장이 의상과 어떻게 조화되면서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화장의 색상과 표현형태 기술상의 미묘한 차이를 구체적인 실물로 접해야하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우리나라 화장품시장을 이끌어 갔다고 할 수 있는 태평양화학에서 발간된 “태평양 50년사”(1945~1995)와 1958년이후 간헐적으로 발간되다가 1972년부터 현재까지 “향장”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발간된 태평양화학 미용 홍보지를 통해 연구하였다. 사진자료 및 문헌자료를 통하여 고찰하고 이를 묘사하는 단어 및 표현 어휘의 부족으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그림으로 보충하였다.

## II. 시대적 배경

### 1. 해방이후(1945~1959)

#### 1) 사회·문화적 배경

광복후 신교육제도 수립을 위해 1945년 10월 학교재개와 때를 같이하여 설치된 교육심의회는 81명의 미군측 위원 중 10명의 미군측 위원이외에는 모두 친미적인 한국 지식인이었다. 이 교육심의회가 6개월간의 활동 끝에 한국교육의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

정부수립후 1949년 12월에 공포된 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도 제도적으로 체계를 정비하였다.<sup>4)</sup>

첫째로 대학의 목적을 ‘국가와 인류 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해와 그 광범하고 정밀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대학을 4년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2년제의 초급대학으로 다양화를 꾀했다.

1950년대 부터 일반사회의 대학관도 크게 변화하여 대학이 소수 엘리트 양성 기관으로부터 남녀 차이를 넘어 능력을 가진 국민모두에게 개방되는

4) 유수경 “전계서” p.45.

다수의 국민교육기관으로 변모되어 갔다.

해방후 이른바 민주주의 교육은 제도 및 법적으로 남녀대등한 여성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여성교육은 근대화 및 민주화의 급진적 변화를 가져왔다.

어쨌든 해방후 여성의 신교육이수 인구의 급속적인 증가는 여성들로 하여금 재래의 남녀평등과 불평등의 인습을 타파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 기간과 6.25전란으로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는 매우 컸고 부정적인 면이 많이 제기되었다. 서민층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직업을 택하였다.<sup>5)</sup>

한편 6.25이후 “댄스가 성행하고 퍼머넌트(permanent)가 유행하여 기이한 양장이 유행”되는 풍조에 대하여 당시의 한 잡지의 기사에서는 이것을 서양문화의 수입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의 고유문화와 동양문화가 점차 소실되어가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sup>6)</sup>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때까지는 여성지도자 중심으로 남녀평등과 여성권익보호를 위한 운동이 그 나름대로 펼쳐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후 분단국가로 되면서 우리 사회는 보수화 되어갔다.

가치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해방이후 여성의 정조관념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으며<sup>7)</sup> 남녀의 자유교제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즉 보수적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50년대 후반 이래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사회의식과 가치관은 급속도로 변모되어 나갔다.

## 2. 경제개발 이후(1960~1969)

### 1) 사회 문화적 환경

1960년대는 한국경제가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모범적이고 우수한 개발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대내적으로 미국 원조정책의 축소 운영에 따른 외환사정의 악화등, 대내외의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독자적인 종합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1950년대의 대외 의존 경제체제로부터 탈피하여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즉, 1962~1971년 기간중 우리나라 경제는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국제 경제여건의 유리한 전개에 힘입어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먼저, 경제성장면에서는 투자증대 및 수출증대에 힘입어 연평균 8.8%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경제규모가 확장되게 되었다.<sup>8)</sup>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현저히 증가함은 물론 경제활동 상태가 복잡다변화하는 현상은 경험적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보편화되고 생활양식도 또한 전통 사회와는 다른 형태로 변천하고 있는데 여성의 역할도 가정내의 가사라든가 자녀 양육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적극적 사회생활에의 참여가 고취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1961~1963년에 이르는 혁명정부는 ‘조국근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거기에 선행되는 조건으로 인격 양성을 문교정책의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교육에서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교육면에 있어서는 재편국민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근대화와 재건이라는 말이 한동안 우리사회를 풍미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의 지표는 조국의 근대화를 실현하는 기반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라는 이중 지표를 교육발전이라는 개념속에 통합

5) 김남천 “여성의 직업문제” 『여성』 1940년 12월 p.26.

6) 유봉용 “해방후에 사회상과 그 성격” 『신세계』 1959년 9월. p.228.

7) 안태호 “대량소비구조의 변천” 『세계평화 교수 협의회』 p.249.

8) 임호섭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1987년 p.10.

시켰다. 높은 교육열에 의해서 국민의 문맹율도 적어도 10%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고<sup>9)</sup> 고학력화 사회의 추세속에서 교육에의 기회확대로 교육인구의 양적 증가현상은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었다.<sup>10)</sup>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은 국민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의 전근대성을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근대적인 가치관을 내면화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즉 전통부분의 특성으로 가족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 인구 및 출산행동과 관련된 가치관, 서민의식과 관련된 가치관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을 내포하면서 현대사회의 특성으로서 변화되었다. 국민의 사회, 문화적 성격을 과거의 가족주의나 신분제 사회로부터 업속주의(業續主義) 능력의 사회로 변혁시켰다.<sup>11)</sup>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이 지배적으로 되었으며 물질소유가 곧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 3. 화장품 산업 발달시기(1970~1979)

1970년대에 와서 특히 주목할만한 변화의 촉진제인 TV는 대표되는 전파매체의 신속한 모방이며 신문과 라디오가 해방이후 상당히 발전되어 왔고 또 그러한 대중매체가 가치의식과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의 생활에 파고든 것은 TV 전파매체이며 이것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크게 좁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의식과 여성에 대한 의식에도 큰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여성 개발 연구

원』이 발족하여 공식적으로 여성문제를 전담 연구하는 기구가 발족된 것은 의식변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다.<sup>12)</sup>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갖게되어 실용주의 내지 실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아졌다.<sup>13)</sup>

### 4. 컬러TV의 방영이후(1980~1995)

통신위성 방송망에 의한 동시중계, 농어촌까지 대량보급된 TV, 패션전문잡지의 발행, 해외여행의 자유화, 대규모의 국제적인 패션쇼에 개최 등에 의한 국제교류의 빈번함 등으로 서구모드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외국과 국내의 패션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었다.<sup>14)</sup>

1980년 12월1일부터 실시된 컬러TV방영은 패션계의 색채감각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소비자들은 TV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자극을 받게됨으로 의복과 메이크업의 색상이 다양해져 1981년 초에는 벌써 검정색, 회색, 갈색 등 그동안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색상의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패션 관련업체도 오렌지, 연두, 노랑, 분홍색 등 화려한 색상의 제품을 전체에 20%에서 40%까지 높여 생산함에 따라 밝고 화려한 색상에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sup>15)</sup>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산업화로 취업의 기회가 증대되어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활방식이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되면서 복식의 선호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시대가 발전되고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새로운 것, 좋은것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데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해 유행에 많은 돈을 쓰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내에서의 부가 확산되자 소비자의 욕

9) 황원연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서울』 1984년.

10) 박길순 "한국현대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요인 분석" 『한양대박사학위 논문』 1991. p.11.

11) 이은숙 "여성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2) 박용현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p.187~225.

13) 박용현 "전개서"

14) 박길순 "전개서"

15) 조선일보 1981년 1월 9일.

구와 기호가 다양하고 고급스러움을 찾는 것으로 변화되어 제품에 패션성 상표 품질을 강조하였고 독특한 스타일이 유행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 Ⅲ. 화장사의 고찰

#### 1. 선사시대(기원전 5000~2000년)

단군신화에 나타난 쑥과 마늘이 미백제(美白劑)이며,<sup>16)</sup> 이를 이용하면서 햇볕을 금기(禁忌)케 한것이 얼굴을 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견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선사시대(先史時代: 新石器·青銅器)에는 한국인이 원시화장을 한 증거가 여러가지 있다. 즉 신분과 부족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해(危害)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삼한사회에서 문신(文身)을 하였으며 북방 거주인들이 돈고(豚糞)를 발라 동상을 예방함과 아울러 피부의 부드러움을 꾀하였다. 읍루(倭婁)와 물길(勿吉)에서 독약을 제조한 사실로 미루어 화장품의 제조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으며 선사시대의 생활 유적지인 조개더미(貝塚: 패총)에서 목과, 팔목, 손가락에 끼거나 걸수 있게 갈고 닦은 조개껍질 짐승의 뼈와 어금니를 가공하여 줄줄이 꿰는 것 등 원시형의 장신구가 대량 출토되고 있다.<sup>17)</sup>

또 각종 미석(美石)을 대롱(管)이나 곡옥(曲玉) 형태로 가공한 것과 대롱형의 청동제품이 있다.

패총이외의 지석묘(支石墓), 석상분(石箱墳) 등에서 천하석(天河石), 백마노(白瑪瑙), 벽옥(碧玉), 응회암(凝灰岩) 등으로 굽은 옥(曲玉), 대롱(管), 공(球), 고리(環) 모양으로 만든 장신구 곡지가 여러개인 거울이 발굴되었고, 어은동(漁隱洞) 출토품 중에서 호랑이머리(號頭) 모양의 패물과 구리 팔찌가 있다. 후한서동이전(後漢書東夷傳)에는 부여(夫餘)와 읍루에서 대추만한 붉은 옥

이 생산되었다고 하며 마한(馬韓) 사람들이 주옥(珠玉)을 옷에 장식하고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고대 한국인의 미의식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암시한다.

#### 2. 신라시대(기원전 1세기~918년)

여섯 소국가의 지도자에 의하여 추대된 신라의 첫임금인 박혁거세와 그의 왕비인 알영은 빼어난 미남미녀였으며 원화(原花)와 화랑(花郎) 역시 미남미녀 중에서 선발되었다.

지(智), 용(勇), 체(體)의 합일(合一) 즉 영육일치사상(靈肉一致思想)으로 인하여 신라인들은 청결과 화장(化粧)을 중시하였다. 그 결과 목욕을 자주하여 사찰에는 공중 목욕탕이 설치되고 부자 집에는 가족목욕탕이 마련되었으며 화장품과 화장술이 발달하였다. 남녀노소가 난향과 사향을 담은 향낭(香囊)을 패용하였고 부인은 가발(假髮)을 사용하였는데 채색비단과 금, 은, 주옥(珠玉)으로 장식하여 멋을 더하였다. 중국의 당나라 여인들은 장발이며 미발(美髮)인 신라계 가발(新羅製假髮)을 매우 부러워하였는데 이는 신라인들이 세발(洗髮)을 자주하고 머리기름(頭髮油)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잇꽃(紅花)으로 연지를 만들어 볼과 입술에 바르고 산단(山丹: 백합의 붉은꽃수술)을 색분(色粉)으로 이용하였으며, 향을 애용하였다. 이밖에 백분(白粉)이 널리 사용되었으며 납분이 발명되기도 하였고 분 제조기술을 일본에 가르쳐 주었다.<sup>18)</sup>

남자의 화장은 분과, 연지를 바르고 귀고리, 반지, 팔찌, 목걸이로 장식하였는데 영육일치사상에 의한 것이었다.

신라의 화장품 제조기술과 화장술이 높은 수준이었음은 유병과 분합, 화장합, 향로, 귀고리, 목걸이 반지, 팔찌와 같은 장신구 등의 고고학 자료

16) 단군신화 “삼국유사” 제1권

17) 송문정 “우리나라 화장전통문화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90 p.12.

18)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87. p.21.

로서도 충분이 입증된다.<sup>19)</sup>

### 3. 백제 · 고구려 시대(기원전 18~668년)

백제와 고구려의 화장문화(化粧文化) 자료는 극히 단편적이지만 신라에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삼국(三國)의 화장술과 화장품의 제조기술이 중국, 일본에 견주어 볼 때 대등하거나 앞섰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옛문헌(三才圖會)에 “일본이 백제로부터 화장술과 화장품 제조기술을 배워 화장하였다.”<sup>20)</sup>는 기록은 백제의 화장문화 수준을 단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백제 여인의 화장에 대하여 시분무주(施粉無朱: 분은 바르되 연지는 바르지 않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 여인의 짙은 화장과 대비한 것이므로 백제 여인들이 옅고 은은한 화장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인들이 공사(公事)로 모일 때 비단과 금, 은으로 장식하고 모두 깨끗한 옷입기를 좋아했다. 밤이면 남녀가 모여서 놀이와 음악을 즐긴 사실로 보아 고구려인들이 신분과 직업에 따라 치장하였으며, 평상시 차례와 나들이 차례의 구별이 있었다.

### 4. 고려시대(918~1392년)

고려인의 화장에 관해 서술한 기록을 보면, “부인은 살짝 머리를 오른쪽 어깨에 드리우고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내려 땡기로 묶고 비녀를 꽂았다.” “향유(香油)바르기를 좋아하지 않고 분을 바르되 연지를 즐겨 바르지 않았으며 눈썹을 엷게 했다.”<sup>21)</sup> 그리고 비단 향낭을 여럿 찰수록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였다. 또한 출가법팔계재(出家法八戒齋)에 도식향만(塗飾香鬘), 부저화영락(不著華璫珞), 불향도식(不香塗身), 부저향훈의(不著香薰衣)에 향

목이 있는데 이로써 신체와 옷에 향료를 뿌리거나 발랐으며 옷에 향내를 스미게 하였고 여러가지 보석 장신구를 패용하고 화장품을 겹겹이 발랐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기록이 다양한 까닭은 신분별 화장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고려시대에는 기생(妓生)이 제도화되어 분을 도포한 듯이 하얗게 발랐으며 눈썹을 가늘게 가다듬어 또렷이 그리고 입술에 연지를 진하게 발랐다. 머릿기름이 반질거릴 만큼 바르는 분대화장(粉黛化粧)이 정착되었다. 분대화장이란 얼굴에 바르는 분과 눈썹 그리는 먹물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에 화장을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볼수있을 것이다. 또 서민 노파도 염모(染毛)하였다.<sup>22)</sup> 한편 고려인들은 희고 깨끗한 피부를 가꾸기 위하여 갓난 아이에게 복숭아 꽃물로 세안시켰으며 향유에 목욕하고 하루에 두 세번씩 목욕하였다. 또 관청에는 빗기술자와 거울기술자를 두어 수요를 충족시켰다.

### 5. 조선시대(1392~1910)

조선시대의 지배층이 사치풍조를 금압하여 외면적인 화려함이 감소한 반면에 내면의 미가 강조되어 내·외적인 미의 합일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신라시대부터 계승된 영육일치사상이 변모한것은 아니었다. 다만 본래의 모습을 은폐시키거나 위장하는 분장류(扮裝類)의 야용(冶容)을 경멸하여 기생, 궁녀, 음악인등 직업여성만이 짙은 분대화장을 하고, 여염여인은 평소에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손질에 주력하고 나들이 연회등 의례(儀禮)때에만 주로 장식(裝飾)하였다. 그러나 숙종(肅宗 1674~1720)때 화장품 방문판매원인 매분구가 있었으며 의인(擬人)소설인 (여용국전) (女容國傳)에 20여종의 화장품과 화장구(化粧具)가 등장하

19) 전완길 “전게서” 1987.

20) 전완길 “전게서” 1987.

21) 전완길 “전게서” 1987.

22) 김천택 “영조 18C 조선초기 작품”이라고도 함.

고 선조(先祖1567~1608)때 일본에서 발매된 ‘韓의露’(아침이슬)화장수가 “조선의 최선 제법(最新製法)으로 제조되었다.”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모두 조선시대의 높은 화장문화의 수준을 전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직업여성과 일반여성의 화장이 뚜렷이 구분되었고,<sup>23)</sup> 여염여성의 경우 평소차림과 의례차림으로 이원화되었다. 또한 이상적인 미인상이 성립되었는데 이는 옥같이 희고, 부드러운 살결, 가늘고 수나비 얇은 듯한 눈썹, 삼단같이 곱으며 구름을 연상시키는 머리, 복숭아빛 뺨 앵두처럼 붉은 입술, 박 속처럼 흰 이, 가는 허리, 흰모래밭의 자라인양 아기작거리는 걸음걸이와 옥반에 진주 굴리듯 낭랑한 목소리의 소유자였다.

#### IV. 복식과 화장변천 및 특성

##### 1. 해방이후(1945~1959)

###### 1) 복 식

1940년대 초기에는 일본은 전투복으로 여성들에게 몸빼를 입게 하고, 여학생복도 전쟁수행의 노력동원에 적합한 것으로 개정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광복 후에도 바지를 착용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간단복’이라는 허리에 벨트가 있고 양 옆에 주머니가 있는 원피스를 입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광복이 되자 처음에는 몸빼와 간단복 대신에 재래 한복이나 통치마저고리를 입었으나 미군정 실시와 해외동포의 귀국으로 다시 양장화가 촉진되었다. 양장은 광복 전까지는 직선적인 형으로 스커트 길이가 짧고 활동적인 군복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나, 광복 이후에는 퍼프 슬리브에 허리가 강조된 재킷과 폭이 넓은 플레어 스커트의 부드럽고 여성적인 스타일이 등장하였다.<sup>24)</sup>

1950년대에는 한복의 저고리 길이가 허리까지 길어지고 치마는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아졌으며 한복은 일상복보다 명절이나 관혼상제의 예복으로 되어 갔다.

양장의 경우, 초기에는 남성적인 재킷과 타이트 스커트의 밀리터리 룩을 많이 입었으나 점차 여성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짧은 상의와 넓은 플레어 스커트의 뉴룩(new look)이 1953년 이후 일반 여성들에게 유행되었다. 폭이 넓은 플레어 스커트를 부풀려 보이도록 하기 위해 페티코트가 사용되었으며, 후반에 들어서 슬림 스커트, 타이트 스커트로 바뀌면서 길이도 조금씩 짧아졌다.

또한 합성섬유가 등장하면서 기계주름을 잡은 아코디언 플리츠 스커트가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다.

또한 중반 이후에 등장한 맘보바지<sup>25)</sup>는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젊은 세대의 상징이었다. 1955~1956년대에 H라인, A라인이, 1958년에는 슈미즈 드레스, 색 드레스가 유행하였으며, 타이트한 실루엣의 원피스에 프렌치 슬리브의 긴 소매나 7부 소매가 유행하였다.

1960년대에는 양장이 일상복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초기에는 튜블러형의 오버코트나 색 드레스등의 단순한 박스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통이 좁고 몸에 맞는 맘보바지 형태의 오드리 헵번 스타일 슬랙스가 등장하였다. 스커트의 길이는 샤넬 라인으로 짧아지고, 프렌치 슬리브는 7부 길이의 슬리브로 변했다. 60년대 중반까지는 색 드레스가 유행하다가, 그 후에는 상의는 몸에 바짝 맞으면서 스커트는 A라인의 형태로 점차 바뀌었다. 소매는 좁고 길어졌으며 웨이스트라인이 허리선에서 약간 높아졌다. 후기에도 계속해서 몸의 선을 강조하는 A라인스타일에 화려한 색상이었고 원피스와 재킷의 벨트는 허리선보다 위로 올리거나 히프 라인으로 내리는 것이 특징이었고 기하학적 문양의 프린트나 강렬한 색채의 대비, 대

23) 조효순 “한국복식 풍속사 연구” 『일지사』 1988. p.387.

24) 유수경 “한국여성 양장 변천사” 『일지사』 1990.

25) 조선일보 1957. 7. 8.

담한 절개의 시도함으로써 의복에 장식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1960년대의 또다른 특징은 미니 스커트와 팬탈롱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2) 화 장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주둔으로 직업여성들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외향이 하나의 유행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당시에는 선진외국가에 활발한 문화교류로 외국영화도 수입되고 영화제작(무성영화 1903년 천연생영화 1949년)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영화에서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보여준 머리모양이나 차림새가 새로운 유행을 몰고 오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 로마의 휴일(1953년 제작)의 여주인공 오드리 햅번(Audery Hepburn)이 선보여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숏헤어스타일이 있다. 1950년대에 화장문화는 화장에 대한 기초지식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단순한 모방차원에 머무는 정도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피부손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기초제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화장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 기초제품의 으뜸은 콜드크림으로 일명 만능크림이라고 불렸다. 화장을 지을 때 및 화장용 또는 마사지용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던 콜트크림은 요즘의 콜드크림(마사지크림)과는 쓰임새가 약간 달랐다. 또 이때에는 화장수, 유액 클린싱크림과 같은 제품 외에 오이, 계란 등을 이용한 천연팩이 유행하였고 하얀 얼굴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표백팩을 많이 하였다(그림 1). 그리고 일반여성들은 표백, 호르몬, 벌꿀크림 등 약용크림도 많이 사용하였다. 1960대 초부터 화장 경향은 부자연스러운 하얀 분화장에서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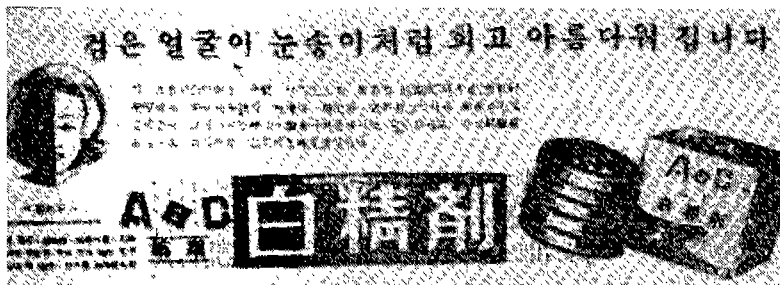
눈매를 표현하는 눈화장이 유행되었고 립스틱 색상도 빨강, 오렌지, 핑크계통으로 다양해져 입술화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1960년대 들어서는 연지가 고체상태인 스틱(립스틱)으로 바뀌어 시판되기 시작하였다.<sup>26)</sup>

2. 경제개발 이후(1960~1969)

1) 복 식

1965년 서구에서 복식의 혁명을 이루었던 미니스커트가 1967년 미국에서 활동중이던 가수 윤복희의 귀국과 함께 상륙하여 1968년에 유행하였고<sup>27)</sup> 1970년대 초에는 무릎 위 20cm이상까지 올라갔다.

1968년에는 팬탈롱이라 불리는 테일러드 팬츠 수트가 등장하였다.<sup>27)</sup>



(그림 1) 1958년 ABC백정제 신문광고  
당시 여성들이 하얀 피부를 선호했음을 짐작케 한다.

26) “태평양 50년사” 『태평양화학』 1995. 9. p.466.

27) “주부생활” 1970. 9.





(그림 2) 1959년 파라솔크림 신문광고  
오늘알의 자외선 차단제품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1967년 부루버드 화장품 잡지광고



(그림 4) 1968년 유행했던 메이크업

2) 화 장

1960년대에 국내 화장품시장은 참신한 기풍을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로 화장품이 사치품으로 인식됨으로써 자유로운 발전이 제약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sup>28)</sup>

1960년대 초부터는 국내화장품 회사의 성장과 함께 미용사원을 통해 화장품 지식을 계몽, 지도함으로써 화장법 패턴이 국내 화장품회사의 광고에 따라 선도되었다(그림 2, 3). 당시 색조화장을 사치로 여기고 색조화장이란 직업여성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태평양화학은 1960년말부터 색조화장에 대한 거



(그림 5) 1969년 아모레 화장품 잡지광고  
눈화장은 청색 아이섀도를 조금 바르거나 아이 라인만으로

부감을 불식시키는 운동을 각종매체를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그림 4, 5). 그리고 1969년 9월에는 한시간에 2000개씩 생산할 수 있는 립스틱 자동성형기를 동양 최초로 도입하는 등 갖가지 메이크업 제품의 생산체계를 갖추었다.<sup>29)</sup>

28)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29)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3. 화장품산업발달시기(1970~1979)

#### 1) 복 식

1970년대 초기의 유행경향을 미니 스타일, 미리, 맥시, 판탈롱, 핫팬츠 등 다양한 모드가 공존하였다. 1971년 봄부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핫팬츠가 유행하여 핫팬츠와 오버코트를 이용한 레이어드 스타일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샤넬 라인 길이의 프린세스 라인으로 재단된 원피스가 유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캠퍼스웨어, 타운웨어로 판탈롱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진으로 만든 의복도 유행하였다. 중반 이후에 판탈롱은 폭이 넓고 길어졌으며, 이와 함께 롱 드레스나 월남치마로 불리던 롱 스커트가 많이 유행하였다. 겨울용 하의로는 누빈 롱 스커트가 유행하였으며 후반에는 캐주얼웨어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루스 룩과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였으며, 바지는 허프에 여유가 있고 밑단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농민풍 블라우스와 집시 스타일의 민속풍이 유행하였으며, 패딩으로 어깨를 강조한 재킷과 슬림 스커트, 통이 좁고 짧아진 바지와 박스형 원피스를 볼 수 있었다.

#### 2) 화 장

60년대가 기초제품과 기초손질에 치중한 시기였다면 70년대는 메이크업에 더욱 치중하였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화장을 야하게 하지 않는것이 정숙한 여인의 표본인 양 여겨 그동안 색조화장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다양한 개성연출이나 표현을 기대할 수 없었다.

1970년도의 화장분위기는 투명한 피부화장, 가늘고 짧은 눈썹, 등글고 깊은 눈매에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불연지 화장이 부드러운 여성미를 더해 주었다(그림 6). 1978년 부터는 메이크업이 total



(그림 6) 1971년 최초의 캠페인 메이크업  
'Ch.. My Love'(하이트 화장품)  
당시 유행색은 핑크계의 보라색이었다.  
모델 : 한혜숙

fashion의 한 부분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겼으며 계절별로 봄은 입술화장, 여름철은 자외선차단, 가을은 눈화장, 겨울은 기초피부손질에 중점을 둔 화장이 정착되었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생활수준도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레저문화가 생겨나면서 바캉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때에 전개된 태평양화학의 여름 캠페인은 선풍화장을 강조하여 화장품의 고전인 하얀 화장대신 브론즈화장의 붐을 일으켰다.<sup>30)</sup>

1972년은 밝고 옅은 화장으로 색조화장이 구체화되면서 채도가 높은 색조로 바뀌는 해였다. 또한 화장도 시간과 장소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의식이 정착되는 해였다. 즉 특별한 유행성을 제시하지 않고 어떤 색이든 사용하여 T.P.O에 따라 자기연출을 하는 화장법이 소개되었다.<sup>31)</sup>

1976년은 전반적인 패션에 경향이 서구적인 분위기에서 동양적인 분위기로 전환하고 화장은 입술과 눈매에 포인트를 두는 포인트 화장중심으로 더욱 세련되고 Body제품이 이때부터 서서히 부상

30)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31)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그림 7) 1976년 봄  
 ‘이봄을 드립니다’ (타미나 화장품)  
 눈과 입술의 표정연출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발랄한 아름다움 강조

하기 시작하였다(그림 7).<sup>32)</sup> 1978년은 획일적인 인형같은 아름다움에서 개성을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패션 자유화가 시작된 해이다. 이 해는 화장법을 한단계 발전시켜 눈 바로 밑이나 콧날에 적당하게 High light를 주어 인상이 밝게 보이도록 하는 화장법이 강조되었다(그림 8).<sup>33)</sup>

지금 흔하게 사용되는 “토탈코디네이트”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화장수준과 화장기술이 향상되는 해이다. 1979년은 TV메이크업을 창안하였고 골격학적으로 얼굴을 T존과 V존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어 밝은 분위기를 나타내는 입체화장법이 선보였다(그림 9).<sup>34)</sup>

#### 4. 컬러TV 방영이후(1980~1995)

##### 1) 복 식

1980년대 초반에는 어깨를 강조하는 빅 앤 루스(big & loose) 실루엣의 레이어드 룩이 계속 유행하였으나 후반에 들어서는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두드러져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의 원칙하에 피트 앤 플레어(fit & flare)를 비롯하여 A라인, Y라인 등이 나타났다. 스커트 길이는 미니



(그림 8) 1978년 가을·겨울  
 ‘눈위에 우주감각-스타칼라’(미보라 화장품)  
 필을 이용해 눈화장에 중점을 둔 실험적인 화장이 선보였다.  
 모델 : 우미애



(그림 9) 1979년 봄.  
 ‘입술위에 뺨위에’  
 입술화장을 강조하고 T자와 V자 모양으로 얼굴에 입체감을 주었다.

부터 사벨 라인, 미디, 맥시에 이르기까지 혼재하였으며, 형태에 있어서도 타이트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 외에 머메이드 혹은 트럼펫 스커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바지는 편리하고 활동적인 캐주얼웨어의 붐으로 1982년을 전후로 배기형의 디스코 바지가 유행하였고, 7부 길이의 바지도 인기를 끌었다. 후반에 들어서면서 승마바지인 조드퍼즈와 일명 고리바지라 하는 타이

32) “태평양 50년사” 『전게서』

33) “태평양 50년사” 『전게서』

34) “태평양 50년사” 『전게서』

트 바지가 유행하였다. 1989년경에는 통바지(wide pants)가 유행하는 등 다양한 바지 스타일의 등장이 1980년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의류가 일상화, 대중화되어 패션다운 파카가 겨울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스톤 워싱이라는 패션진이 등장하였다.

1990년 초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자연으로 회귀를 꿈꾸는 에콜로지(ecology)가 주요 패션 테마로 나타나, 장식을 최대한 절제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섹시한 여성미를 강조한 미니와 레이어드 룩이 등장하였다.

계속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1990년대에는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것을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하는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80년대의 여피족은 사라지고 베이블 세대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들의 관심사인 건강과 여가에 관련된 스포츠웨어와 레저웨어의 개념이 더욱 확대 되었다. 또한 후세에 대한 환경과 자원의 보존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표백과 염색처리가 안된 면직물과 린넨만을 사용한 그린패션(green fashion)을 유행시켰다.<sup>35)</sup>

## 2) 화 장

80년은 TV 방송국들이 컬러방영을 시작한 해이다. 소비자들의 컬러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한편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였고 연예인들의 화장이 방송을 타고 일반에게 그대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1982년 봄 태평양화학 화장품 캠페인의 대표적 색상은 핑크와 보라색 계열에 우아하고 신비스러운 색상이었고 가을에 대표적인 색상은 청회색과 같은 중간톤의 색상이었다(그림 10).<sup>36)</sup>

1984년은 패션에 있어 부드럽고 여성적인 라인이 유행한 해이다. 이에 따라 파스텔 핑크, 환타지 핑크등 핑크계열의 립스틱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림 10) 1982년 봄

‘산호색 봄이 속삭여요’

(부루아 모이스취 메이크업)

대표적인 색상은 핑크와 오렌지빛의 중간톤

모델 : 금보라



(그림 11) 1986년 봄

‘색다른 색의 주장-나그랑’

두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 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모델 : 황신혜

1986년은 두발 화장품인 증발제, 헤어무스가 도입되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해이다(그림 11). 1988년은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해로서 여성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자신의

35)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36)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개성을 강력한 주장으로 펼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패션을 가지고자 하는 경향을 띄게 되어 메이크업의 유행을 화장품회사에서 주도해 가던 것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고객이 결정하는 소비자의 시대가 되었다.<sup>37)</sup> 또한 이때는 피부의 아름다움을 갈색계에 탄닝된 피부에서 찾고자 했던 1970년대 여름과는 달리 일상의 생활자의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UV화장품이 기초 제품에서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붐을 이루는 시기이다.<sup>38)</sup> 1990년대 들어서는 고도의 성장과 컴퓨터의 발달, 자동화, 기계화등 급변하는 사회적 양상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지향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에콜로지(ecolgy)경향으로 패션, 실내장식, 미용등 생활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고 심플하면서 절제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초화장품은 보다 자연성 소재를 선호하는 흐름으로 표출되고 메이크업도 자연스러운 화장 색조로 절제된 패턴을 강조하면서 현대의 개성미를 표출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독창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그림 12).



(그림 12) 1990 가을  
 ‘브라운 그 영원한 가을색’ (미로)  
 피부표면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두가지 분위기 연출  
 모델 : 오현경

첨단과학을 통한 신소재에 탁월한 피부보호와 노화지연효과로 기존의 스킨케어 개념에서 보다 진보한 하이테크 메이크업이 제시되었다. 1992년에는 복고적인 느낌을 주는 새로운 아이세도기법이 아이홀<sup>39)</sup>을 강조하는 눈화장이 나온 해이기도 하다. 또 가을 색조로 브라운계열의 아이세도우를 출시하였고 이지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상을 내세웠다. 1993년 봄에는 일하는 여성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모습인 친근하고 편안하며 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투명한 산호색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가을 메이크업 캠페인은 사회 전반에 확산된 에콜로지 흐름과 일치되는 링크 브라운을 주장하였다.(그림 13).<sup>40)</sup>

## V. 결 론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여성 화장 변천과 특성을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1993 봄  
 ‘여유로 다가오는 지성의 빛-심플리 코랄’  
 (마몽드) 모델 : 이영애

37) “태평양 50년사” 『전게서』

38) “태평양 50년사” 『전게서』

39) EYE HOLE : 눈썹뼈와 속눈썹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하며 눈은 크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화장술.

40) “태평양 50년사” 『전게서』

첫째시기(1945~1959), 6·25동란으로 패션산업은 기본마저 상실하여 수요는 겨우 밀수와 구호품으로 충족하였다. 이때까지도 여성의 사회 진출은 거의 미비하였고 대부분 생계를 위한 산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한 의식은 전무하였고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직업여성의 치레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박화장, 옅은 화장, 점잖은 화장을 강조하였다.

둘째시기(1960~1969), 60년대, 경제가 향상된 이후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오면서 여성의 치레에 관한 고정관념이 많이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장은 백색 피부를 선호하는 피부관리 수준이었고 색조화장은 초보적 수준이었다.

평면적이고 큰 동양인의 결점을 커버하기 위한 입체화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눈매를 표현하는

눈화장이 유행되고 립스틱 색깔도 빨강, 오렌지, 핑크로 다양하게 색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세째시기(1970~1979),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레저문화가 보급되어 전통적인 백색 피부선호에서 갈색피부를 선호하였고 피부색깔에 어울리는 화장패턴이 생겨나고 메이크업에도 토탈패션 개념이 생겨나서 의상색깔과 조화를 이루는 메이크업 색상이 유행했다.

넷째시기(1980~1995), 칼라 TV 방영으로 색깔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일으켰고 의상과 메이크업 색상의 변화를 크게 가져왔다. 또한 두발제품의 확대로 화장품이라면 얼굴부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바디제품, 향수류 등 전신 제품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피부보호 차원의 화장품이 많이 선호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그

<표 1> 시대의 변천에 따른 화장의 변화

시대구분	시대적 특징	화 장	의 상	화장과 의상의 비교	참고그림
1945~1959	· 6.25동란	-피부보호계에서 미의 추구로 바뀜. -기초화장품 중심에서 화운데이션 립스틱, 콤팩트 등 메이크업 제품 생산. -백색 피부 선호.	-양장착용 인구 증가. -밀리터리스타일, 샤넬 슈트, 코트, 맘보바지 유행.	-서양영화의 상영으로 영화배우의 의상, 화장 머리모양의 모방함.	(그림 1)
1960~1969	· 5.16군사혁명 · 경제개발시기	-피부의 건강함을 살리는 메이크업. -눈화장을 청색 아이세도우를 조금 바르거나 아이라인을 밖으로 눈 강조. 오렌지 립스틱. -옅은 녹색 아이세도우 핑크, 오렌지 립스틱. -아이라인 끝을 돌려그리는 개성적인 눈 화장.	-양장이 일상복으로 정착 미니나 판타롱의 유행. -초기에는 미니, 맥시 판타롱 공존.	-젊은층에서의 서구의 유행을 적극 수용, 장발, 미니스커트 유행.	1960(그림 2) 1967(그림 3) 1968(그림 4) 1969(그림 5)

(그림 1)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그림 2)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그림 3)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그림 4)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그림 5)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p>1970~ 19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경제성장기. TV, 잡지등 대중매체의 발달.</li> <li>· 여성의 교육의 확대로 취업여성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행색은 핑크계의 보라색.</li> <li>-눈과 입술 메이크업에 중점, 색의 표현이 중요시됨.</li> <li>-동양적인 경향으로 색상은 부드러우면서 칙칙한 색조가 주류.</li> <li>-직선눈썹, 입술에 중점, 눈화장에 중점.</li> <li>-TV메이크업으로 입체화장 유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반 미니가 사라지고 Long Look과 함께 클래식한 것이 컴백,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복고풍의 의상.</li> <li>-1940년대 전원적 분위기의 복고풍, 클래식한 패션.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한 의상.</li> <li>-루스룩, 레이어드룩 유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발 화장품이 생산됨.</li> <li>-패션의 조화가 중시되면서 메이크업에도 토탈패션의 개념이 생김.</li> </ul>	<p>1971(그림 6) 1976(그림 7) 1978(그림 8) 1979(그림 9)</p>
<p>1980~ 19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컬러TV방영</li> <li>· 86아시안게임</li> <li>· 88올림픽대회 메스컴의 발달.</li> <li>· 경제가 풍요로워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적 색상 핑크와 오렌지빛의 중간톤으로 코랄색상.</li> <li>-여름에는 갈색 위주로 황금색 펠과 벽돌색의 조화, 가을에는 카키색 유행 메이크업 색채가 다양해짐.</li> <li>-두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li> <li>-미래지향적인 하이테크칼라로 표현</li> <li>-fresh green, fancy coral, blue의 주색상으로 여성의 지성미 표현 핑크브라운 색조 유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에 민속풍의 패턴이 많고 부드럽고 광택소재 유행.</li> <li>-웨미닌 룩, 클래식이나는 분위기의 의상.</li> <li>-에콜로지의 경향으로 색상이 자연스럽고 천연소재가 인기.</li> <li>-덴디룩, 동양풍 에스닉 무드, 여성미의 long skirt 소프트 사파리 룩, 다양한 스타일 개성을 표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의상과 화장의 색상에 영향을 줌.</li> <li>-향수류 body제품에 관심을 가짐.</li> </ul>	<p>1982(그림 10) 1986(그림 11) 1990(그림 12) 1993(그림 13)</p>

들만의 개성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개념 색상에서 벗어난 입술색상과 매니큐어 색상에 다양한 개성이 표현되고 있다.

이상 분석결과 화장변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첫째, 메이크업은 토탈패션(total fashion)의 중요한 요소로서 의상과 상호영향을 주면서 변화하였다.

둘째, 한국인의 전통 화장법인 피부관리 중심인 백색 피부선호에서 서구문물에 영향으로 의복의

- (그림 6)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 (그림 7)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 (그림 8)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 (그림 9)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 (그림 10)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 (그림 11)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 (그림 12)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 (그림 13) 태평양 화학 미용 홍보지 『향장』 1967~1995.

서구화가 이루어졌듯이 화장의 서구화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 변천되었다. 얼굴중심의 화장에서 전신 화장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여성교육, 여성지위의 향상이 화장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넷째,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화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전완길 외, 한국생활문화 100년, p.60.
- 2) 유수경, 한국여성 복식변천사, 일지사, 1991. p.171.  
신여성은 단발머리에 짧은 저고리 짧은 치마를 입고 양산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을 일컬음.
- 3) “大韓 和事典” : 우아하고 얇은 화장을 말함.
- 4) 유수경, 전계서, p.45.
- 5) 김남천, 여성의 직업문제, 여성 1940, 12, p.26.
- 6) 유봉용, 해방후의 사회상과 그 성격, 신세계, 1959. 9, p.228.
- 7) 안태호, 대량소비구조의 변천,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p.249.
- 8) 임호섭,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1987. p.10.
- 9) 황원연,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서울, 1984.
- 10) 박길순, 한국현대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991, p.11.
- 11) 이은숙, 여성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12) 박용현,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187~p.225.
- 13) 박용현, 전계서
- 14) 박길순, 전계서
- 15) 조선일보, 1981. 1. 9.
- 16) 단군신화, 삼국유사, 제1권
- 17) 송문정, 우리나라 화장전통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p.12.
- 18)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87, p.21.
- 19) 전완길, 전계서
- 20) 전완길, 전계서
- 21) 전완길, 전계서
- 22) 김천택, 영조 18C 조선초기 작품이라고도 함.
- 23) 조효순, 학국복식 풍속사 연구, 일지사, 1988, p.387.
- 24) 유수경, 한국여성 양장 변천사, 일지사, 1990.
- 25) 조선일보, 1957. 7. 8.
- 26) 태평양 50년사, 태평양화학, 1995. 9. p.466.
- 27) 주부생활, 1970. 9.
- 28)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29)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30)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31)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32)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33)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34)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35)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36)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37)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38)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39) Eye hole : 눈썹뼈와 속눈썹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하며 눈은 크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화장술.
- 40) 태평양 50년사, 전계서

###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Women's make-up  
— from 1945 to 1995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20th Korean women's make-up the result of the study as follows :

In the period 1920's

1. The drastic social changes such as



civilization and revolution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ulture affected make-up, and clothes.

New women and high school girls wore the modified costume, make-up, hair style, But general public women keep to traditional skin care style and white skin colour was popular.

2. In recent year after 1960's economic development the women's social status were promoted after 1970's, various colour emphasize lip, eye, there by resulting in remark-

able modification in the Korean women's appearance.

In those days, there was the large cosmetic product of various colour

3.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value of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otal fashion is the harmonization of clothes and make-up.

4. It was also suggested Korean beauty in the future should be achieved in accordance with tradition and modern sense.